

메시지 2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성경: 엡 1:10, 3:9, 딤후 1:4, 갈 6:18, 고전 15:10, 뱌후 3:18상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고, 그 결과 그들이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점유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실체는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 엡 1:3-23.
- A.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전체의 중심 노선이다 — 엡 1:10, 3:9.
 - B. 성경의 해석은 이 중심 노선에 의해, 이 중심 노선의 빛 비춤 아래 엄격하게 통제받아야 한다 — 눅 24:27, 32, 44.
 - C.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 딤후 1:4.
 - D.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삶이다 — 고후 5:14-15.
- I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갈 6:18.
- A.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이다 — 갈 6:18.
 - 1.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초점이다 — 요 3:6, 롬 8:10, 15:29, 엡 1:3.
 - 2.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한다 — 빌 1:19, 딤후 4:22.
 - B.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다 — 요 1:14, 고전 15:45하, 딤후 4:22, 몬 25.
 - 1. 은혜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하나님 아버지이다. 궁극적으로 그 영께서 곧 은혜이시다 — 히 10:29.
 - 2.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이 은혜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거한다 — 빌 4:23.
 - 3.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 딤후 4:22.
 - 4.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머리와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갈 6:18, 히 4:16.
 - C.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고후 13:14, 몬 25.
 - 1.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 요 1:16, 계 22:21.
 - 2.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 갈 3:2-5, 요 3:34.
 - 3.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전달에 우리 자신을 열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의 영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 살전 5:16-18, 롬 10:12-13.

4.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점차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이다 — 고후 1:12, 12:9.

III.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고전 15:10.

- A.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세 번 언급된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고전 15:45), 우리가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1.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요 1:17, 갈 2:21.
 2. 죄인들의 우두머리(딤후 1:15-16)인 다소의 사울이 가장 앞선 사도가 되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 이 은혜로 말미암은 바울의 사역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 고후 1:12, 12:9.
- B.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 곧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1. 사도 바울을 밀어 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서 사신 분이셨다.
 2.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선포와 일치한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a.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b.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IV.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십시오.” — 벧후 3:18상.

- A.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생명 공급의 이러한 내적 근원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 벧전 5:10.
- B. 은혜는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 있다 — 빌 4:23.
 1. 은혜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 골 2:19.
 2.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영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혜로 자라야 한다 — 계 22:21.